현대소설연구(제81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1.03.81.261

# 식민지 조선과 탐정소설의 번역

##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소설 「K.K.K.」와 「심야의 공포」를 중심으로

정 혜 영*

요약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발표된 두 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소설 「K.K.K.」와 「심야의 공포」를 통해 번역과 사회 간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두 편 중 「K.K.K.」는 1922년 근대조선 건설을 지향하며 발행된 잡지 『학생계』에 번역 게재되었으며 「심야의 공포」는 1939년 잡지 『조광』에 게재되었다. 「K.K.K.」 경우 번역 과정에서 몇 몇 감성적 용어 및 문장의 첨가로 인해 탐정소설로서의 특질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작의 정확한 전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심야의 공포」는 조선 유일의 탐정소설 작가 김내성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번역과정에서 개작에 가까운 다양한 변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 소설의 번역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변환을 중심으로 번역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셜록 홈즈 시리즈, K.K.K., 심야의 공포, 근대조선, 학생, 조광, 탐정소설, 번역

*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초빙교수

목차

1. 서론
2. 식민지 조선과 셜록 홈즈 시리즈의 번역
3. 근대적 세계의 학습과 탐정소설이라는 텍스트
4. 추론의 약화와 괴기소설의 탄생
5. 결론

## 1. 서론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 상을 수상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번역에 대한 한국 사회 내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채식주의자」의 오역 논란이 사람들에게 직역의 어려움을 일깨워주었다면 현지화를 고려한 〈기생충〉의 의역은 사람들에게 번역의 본질적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번역과 관련한 이와 같은 논란은 타국어로 창작된 문학을 자국어 바꾸어서 수용하는 일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제기되어 왔다. 번역 방법에 대한 프리드리히 슐라이마허의 고전적 지적, '번역자가 저자를 두고 독자를 최대한 저자 쪽으로 데리고 가는 방법'과 '독자를 제자리에 두고 저자를 최대한 독자 쪽으로 데리고 가는 방법'은 번역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핵심을 반영해준다고 할 수 있다.

자국어와 타언어 간의 간극, 자국 문화와 타문화 간의 간극을 고려할 때, 번역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논란과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타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완화된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문학과 번역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각이 분명해질수록 번역 방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오히려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이루어진 서구문학의 번역작업에 대

한 고찰은 번역의 의미를 파악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 고찰은 한국 근대문학의 실재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구문화 접촉 경험이 없었던 식민지 시기 조선 대중들에게 근대적 서구 세계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문학은 유효한 텍스트였고, 텍스트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저자를 최대한 독자 쪽'으로 데리고 가야만 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번역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발표된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 상황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1)]

## 2. 식민지 조선과 셜록 홈즈 시리즈의 번역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된 서구탐정문학은 프랑스 소설가 부아고베의 「묘안석 반지L'oeil-de-chat」이다. 한국에서 부아고베는 「철가면」 작가로만 알려져 있으나 서구에서 그는 다수의 탐정소설을 발표한 탐정소설 전문 작가로서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다.[2)] 「묘안석 반지L'oeil-de-chat」는 부아고베가 1888년 발표한 '탐정소설'로 한 부유한 청년이 우연히 묘안석, 풀

1)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이루어진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의 의미에 대해서 처음 주목한 것은 박진영이다. 박진영은 논문 「천리구 김동성과 셜록 홈스 번역의 역사 - 『동아일보』 연재소설 『붉은 실』」(『상허학보』, 2009, 277-317면)에서 조선 최초의 원작 직역을 표방하고 나선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의 의미를 김동성의 삶의 이력과 연관해서 고찰하고 있다. 박진영의 연구 성과를 시작으로 셜록 홈즈 시리즈의 번역과정과 조선 사회의 근대성 간의 관계를 포착해낸 연구가 나온다. 연구로는 「번역과 번안 간의 거리」(졸고, 『탐정문학의 영역』, 역락, 2011)와 「식민지 조선과 셜록 홈즈: 『바스커빌 가의 개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의 조선어 번역과정을 중심으로」(졸고, 『외국문학연구』, 2019, 91-114면)와 「『태서문예신보』의 이상과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 - 「충복」을 중심으로 -」(졸고, 『동서인문학』, 2021, 153-182면), 「『태서문예신보』 소재 소설 「충복」 연구 -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조경덕, 『국제어문』, 2017, 183-209면)이 있다. 이외 박진영의 『탐정의 탄생 : 현대 근대 추리소설의 기원과 역사』는 번역탐정소설에 관한 전체적 조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2) 현재 한국에서 부아고베의 소설은 「철가면」만 번역되어 있다.

어서 말하자면 고양이 눈 모양의 반지를 낀 범죄단체의 처형장면을 목격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조선에서 1912년 「지환당」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동양서관에서 출판된다. 개화기부터 식민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소개된 대부분의 서구문학이 일본어 번역의 중역이었던 것처럼 「지환당」 역시 일본어 번역을 조선어로 중역한 것으로 저본은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의 「유비와(指環)」(1889)이다.[3)]

구로이와 루이코는 「묘안석 반지L'oeil-de-chat」 번역 이전에 이미, 세계 최초의 장편탐정소설로 언급되는 「르루쥬사건」을 비롯해서 「타인의 돈」, 「목줄」 등 에밀 가브리오의 탐정소설 수편을 번역한 바 있었다.[4)] 에밀 가브리오와 부아고베 작품을 중심으로, 구로이와 루이코가 일본어로 번역한 십여 편이 넘는 서구 탐정소설 중에서 조선의 민준호가 한 편을 선택하여 조선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지환당」이었다. 말하자면 수많은 서구탐정소설 중에서 일본의 구로이와 루이코가 에밀 가브리오 작품 몇 편과 부아고베 작품 몇 편을 선택해서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선택된 구로이와 루이코의 일본어 번역소설 중에서 조선인 민준호가 다시 한 편을 선택해서 조선어로 번역한 것이다. 한 편의 서양탐정소설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서 조선어로 번역되는 과정에는 번역자의 선택과 판단이 개입되고 있었고, 그 판단의 기저에는 번역자가 속한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번역작을 선택한 것일까. 일단 서구근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던 메이지 시기 일본 경우, 세계 최

3) 「유비와(指環)」는 1889년 미야코신문(都新聞)에 1889년 3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재된다. 연재가 마감된 후인 1889년 11월 단행본으로 출판된다. 그리고 1914년에 다시 '탐정소설'이라는 제명을 첨가하여 「探偵小說指環」라는 제명으로 단행본으로 출판된다.

4) 「르루쥬사건」은 「지환당」 발표 바로 다음 해인 1913년 이해조 번역으로 조선에 소개되며 조선에 번역된 두 번째 탐정소설이다. 구로이와 루이코는 에밀 가브리오 탐정소설과 더불어 다수의 부아고베의 탐정소설, 예를 들자면 「봉해진 입술」, 「잘린 손」, 「오페라좌의 비밀」 등도 번역하였다.

초 장편 탐정소설로 언급되는 에밀 가브리오의 「르루쥬사건」이라든가 세계최초의 탐정소설로 언급되는 에드가 알란 포우의 「모르그 가의 살인사건」처럼 탐정소설사에서 의미를 가진 작품을 우선적으로 번역하는 등, 번역작 선정에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서구 사회의 문화적 상황과 탐정소설 역사에 대한 인식 아래 번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조선의 탐정소설 번역과정에서는 번역작 선정과 관련한 이와 같은 일관된 기준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자면 탐정문학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묘안석반지」가 탐정소설로서는 최초로 번역되는가 하면,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작가, 평단, 독자 모두의 관심 밖에 있던 「세학생」이 조선 최초의 셜록 홈즈 번역작으로 선택된 것이다.[5)]

「묘안석반지」가 번역된 1912년 일본에서는 이미 「르루쥬사건」이 「사람인가 귀신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호의 동양서관에서는 서구탐정소설 최초의 번역작으로서 부아고베의 「묘안석반지」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묘안석반지」 번역 바로 일년 뒤, 이해조가 「누구의 죄」라는 제목으로 「르루쥬사건」을 번역하기는 하지만 왜 「르루쥬사건」을 제치고 부아고베의 「묘안석반지」가 선택되었는가, 왜 정통탐정소설작가 에밀 가브리오의 수편의 소설을 두고 부아고베의 소설이 선택되었는가는 흥미롭다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동안 서구탐정소설 중 번역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셜록 홈즈 시리즈의 번역과정에 대한 고찰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셜록 홈즈 시리즈는 1918년 「세학생」이 번역되

5) 1940년 조광사에서 『세계걸작탐정소설전집』을 간행한다. 전집이라고는 하지만 3권이 전부로 수록된 작품을 정리하면 1권: 에밀 가브리오의 「르루주사건」과 이든 필포츠의 「紅髮레드메인일가」, 2권: 「바스커빌의 괴견」 그리고 3권: 프레드릭 쿠머의 「파리의 괴도」이다. 이 작품들이 왜 대표작으로 선정되었는지 그 선정 기준 역시 불명확하다.( 조광사 발행의 『세계걸작탐정소설전집』의 게재 소설 및 번역 의도에 대해서는 「번역과 문화, 그리고 독자」(졸고, 『대중문학의 탄생』, 아모르문디, 2016)에서 다루고 있다.

면서 처음 소개된다. 이후 1941년 「바스커빌의 괴견」 번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14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가 조선에서 번역된다.[6] 코난 도일이 「쇼스콤장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60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완결한 것이 1927년이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셜록 홈즈 시리즈 작품집이 출판되었고[7] 일본에서도 1920년대 셜록 홈즈 전집이 번역, 출판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셜록 홈즈 시리즈의 번역은 상당히 늦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의 번역 상황을 돌아보면 셜록 홈즈 시리즈는 여타 탐정 문학에 비해서 오히려 활발하게 수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 시리즈 경우 14편이 번역되고 있었지만 모리스 르블랑의 괴도 뤼팽 시리즈는 6편만 번역되고 있었다.[8]

셜록 홈즈 시리즈가 나름 대중적 호응을 받기는 했지만 이 호응이 탐정소설 자체에 대한 호응이었는가 어떤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탐정소설이 근대문학으로서 보다는 일종의 기이한 이야기, 즉 기담으로서 수용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 한 예를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최초로 조선에 번역된 「세학생」의 번역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세학생」은 「충복」이라는 제명으로 조선 최초의 서구문학 전문 번역지 『태서문예신보

6) 식민지 시기 동안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은 모두 16차례 이루어졌다. 이 중 「The Boscombe Valley Mystery」가 1921년 1933년 두 차례에 걸쳐서 번역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조선어로 번역된 작품은 모두 14편이다.

7) 서구문학의 번역수용에서 항상 일본이 중국에 앞서있었지만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에서만은 중국이 일본을 앞서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 시리즈 60편 중 39편이나 되는 작품이 일역되기 이전에 중국어로 번역되고 있었다. 아울러 중국에서 셜록 홈즈 시리즈 전집은 작품 다섯 편을 수록한 1899년 『包探案』을 시작으로 7편을 수록한 『華生包探案』(1902) 그리고 이를 보완한 『補譯華生包探案』(1903)이 나왔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樽本照雄의 『漢訳ホームズ全集』(汲古書院, 2006, 140-145면 참조)를 참조했음

8) 번역 빈도수가 대상 작품의 대중적 인기와 반드시 정비례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인기 여부를 읽을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리스 르블랑의 괴도 뤼팽 시리즈 경우 모두 20편에 불과하기때문에 원작의 번역 비율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추정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다.

』에 편집주간 장두철 번역으로 게재된다.[9] 조선 전통적 문학과는 이질적인 이 새로운 문학을 두고 번역자 장두철은 '탐정기담'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일본에서 detective novel의 번역어로서 성립된 '探偵小說'이라는 명칭 중, '탐정'이라는 용어만 차용한 후, '소설'이라는 용어 대신 '기담(奇談)'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이다.

같은 시기 『태서문예신보』의 편집상황을 살펴볼 때 이는 예외적인 일이었다. 투르게네프의 「밀회」라든가 베셋의 「愛의 승리」 등 여타 소설 경우 장르명 없이 게재된 반면 「충복」만 '탐정기담'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탐정기담'이라는 용어 하나로 「충복」을 나머지 문예물로부터 분리시키고 차별화한 편집방식 덕분에 「충복」은 『태서문예신보』에서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독립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에 존재한 적이 없는 '탐정'이라는 낯선 존재가 등장해서 추론과 분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소설은 당시의 조선 대중들에게는 이질적인 문학 형태였다. 아울러 탐정소설은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은 '道'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온 조선의 전통적 인식과 배치된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서구탐정소설과 조선사회의 전통적 문학관 및 조선 대중과의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번역작 선택 등 탐정소설의 번역은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충복」을 기점으로 시작된 셜록 홈즈 시리즈 조선어 번역을 분석해보면 14편 중 장편이 2편, 첫 작품집 『셜록 홈즈의 모험』 소재 단편이 7편, 마지막 작품집 『셜록 홈즈의 귀환』 소재 단편이 6편이며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 와 1930년대 각각 7편과 9편으로 거의 동일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번역 태도의 경우 「얼룩끈(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and)」의 조선어 번역 「심야의 공포」를 제외하면 나머지 번역작은 원작의 시점, 인

9) 번역자명은 '해몽'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해몽'은 『태서문예신보』의 편집주간으로 수 편의 번역물을 게재한 장두철이다.

명, 지명 등은 모두 원작에 가까운 형태로 번역되고 있다. 원작에 가까운 형태로 번역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번역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의 삭제와 첨가 같은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삭제'는 과학적 서술이나 긴 분량의 추론 과정, 그리고 세밀한 풍경 묘사 등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과학과 추론, 근대문학의 묘사기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조선 독자들을 배려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첨가' 역시 사건의 해결 과정이나, 서구의 이질적 문화와 관련힌 서술이 나올 때 이 부분에 지식이 없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형태로 덧붙여진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탐정 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이 상당 부분 소멸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번역 태도는 셜록 홈즈 시리즈의 식민지 시기 마지막 번역작인 「바스커빌의 괴견」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목의 자극적 변환 역시 동일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20년대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물을 살펴보면 원작 직역을 내건 김동성 번역작을 제외한 두 편의 번역물, 「세학생」과 「다섯 개의 오렌지 씨앗」 경우, 번역 과정에서 각각 「충복」, 「K.K.K.」와 같은 이질적 제목으로 바뀌고 있다. 전자는 범인 추적의 실마리가 되는 충직한 하인을, 후자는 범죄사건의 핵심에 있는 K.K.K. 단체를 제목으로 내세워 독자들이 문제 해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탐정소설 독자들이 즐기는 범인 찾기의 재미, 즉 추리의 묘미가 반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탐정소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제목의 변화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 '자극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1930년대 발표된 셜록 홈즈 시리즈 제목을 살펴보면 9편 중 3편이 원제와는 무관한 제목으로 번역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저명한 의뢰인」은 「색마와의 격전」으로 「세 박공의 집」은 「미인의 비밀」로 「얼룩띠」는 「심야의 공포」로 바뀐다. 이외, 원제 그대로 조선어로 번역된 「흡혈귀」, 「바

스커빌의 괴견」 등도 제목이 자극적이며 괴기스럽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제목의 변환을 비롯하여 추론의 삭제, 설명 첨가 등 번역 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를 통해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탐정소설에 대한 인식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 인식이란 최초의 셜록 홈즈 번역작 「충복」에 대한 태서문예신보의 태도, 단적으로 말해서 탐정소설을 '기이한 이야기', 즉 '기담'으로 수용한 태도와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서구 탐정소설의 번역 및 수용은 탐정소설의 본래적 특질과는 무관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 3. 근대적 세계의 학습과 탐정소설이라는 텍스트

1922년 잡지 『학생계』에는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다섯 개의 오렌지 씨앗」 이 「K.K.K.」라는 제목으로 번역, 게재된다. 『태서문예신보』의 「충복」(1919), 『동아일보』의 「붉은실 」 (1921)시리즈에 이은 세 번째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이다. 「K.K.K.」는 인명, 지명을 모두 조선식으로 바꾸었던 앞의 두 번역과 달리 인명과 지명을 원작 그대로 옮기고 있다. 조선 바깥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조선 독자의 입장에서 영어 인명과 지명으로 이루어진 소설을 읽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더하여 셜록 홈즈 시리즈를 포함한 당시 서구 탐정소설 독서를 위해 조선의 독자들이 넘어야 할 관문은 또 있었다. 범죄소설이라는 장르가 당대 사회와의 깊은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탐정소설의 독해를 위해서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K.K.K.」 역시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남북전쟁 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 간의 정치적 관계가 범죄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낯선 지명, 낯선 역사를 읽어내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더하여 조선인들로서는 경

험한 바 없는 '과학적 추론'까지 독서의 기본적 전제조건으로서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탐정소설이 조선 독자들에게 낯선 문학 형태였던 1920년대 초반, 무려 세 편의 번역 탐정소설이 『학생계』에 게재된 것은 독특하다면 독특한 일이었다.[10] 일단 최초로 서구탐정소설을 번역 소개한 『태서문예신보』 경우 서구문예 소개를 내걸고 있었던 만큼 탐정소설 게재는 잡지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었다.[11] 그렇다면 『학생계』에서는 비교육적인 범죄사건을 다루고 있는 데다가 일반독자들이 읽어내기도 어려운 서구 탐정소설을 왜 세 편씩이나 게재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된 조선 최초의 학생종합잡지 『학생계』의 권두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계』가 창간된 것은 삼일운동이 실패로 끝난 일 년 후인 1920년 7월. 그래서인지 삼일운동의 실패에 대한 자기반성의 연장선상에서 전통적 조선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조선의 건설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권두언의 주를 이루고 있다.

권두언에서는 당시 조선의 현실을 '컴컴한 넓은 大海가 조선을 '삼키려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로 명명한 후,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어

10) 『학생계』에는 「K.K.K.」이외에 「검은 그림자」1920.7.-1920.8)와 「전율탑」(1921.3-4) 두 편의 번역 탐정소설이 게재된다. 「검은 그림자」는 고문룡 번역으로 되어 있을 뿐 원작자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미완이다. 「전율탑」은 제목과 더불어서 The house of terror'라는 영문 제목이 함께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볼 때 번역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꿈길이라는 필명만 있을 뿐 원작자 이름은 물론, 이 작품이 번역이라는 설명도 없다. 『학생계』 게재 소설을 고려할 때 탐정소설이 세 편이나 게재된 것은 상당히 많은 수치로서, 잡지 편집진이 탐정소설에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 『태서문예신보』에 게재된 「충복」은 셜록 홈즈 시리즈 「세학생」을 번역한 것이다. 이 소설이 조선어로 번역된 1918년에는 이미 38편에 이르는 셜록 홈즈 시리즈가 발표되어 있었고 이 중에는 수작으로 언급되는 「주홍색 연구」라든가 「얼룩띠」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8편 중에서 「세학생」이 번역작으로 선택된 것에는 당시 『태서문예신보』 편집을 맡은 장두철과 조선 기독청년회와의 관계, 유교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남이었던 조선 사회와 서구적 문학수용 간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계몽'이 우선적 가치였던 작품 선정에서 가능한 한 당대 조선의 상황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태서문예신보』의 이상과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 -「충복」을 중심으로 -」(졸고, 『동서인문학』, 2021, 153-182면)을 참조했음

느 것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선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새 조선에 새 문명을 세우"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피력되고 있다.[12] 그렇다면 '새 조선의 건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권두언에서는 '남과 같이 지식을 배워야'한다며 답을 '교육'에서 찾고 있다. 이처럼 『학생계』는 새조선 건설의 기본 요건인 근대교육의 대중화를 견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창간된 것이었다. 탐정소설의 게재 역시 이와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세계의 풍습, 근대과학적 이론의 활용, 추론적 사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탐정소설은 조선독자들에게 새 문명을 상징하는 서구적 근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매개였던 것이다. 이는 「K.K.K.」의 번역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K.K.K.」는 미국의 백인우월주의 비밀결사단체인 쿠·클럭스·클랜(kuklaxklan), 즉 K.K.K.와 관련한 범죄사건을 다루고 있다.[13] 『학생계』에 2회에 걸쳐 게재되지만 2회 때에 코난 도일의 잘못된 표기인 '코난 도인'[14]이라는 이름만 게재될 뿐 원작명은 물론 번역자의 이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60편이나 되는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 흑·백 인종문제라고 하는 미국 특유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이 번역작으로 선택된 것은 의외였다고 할 수 있다. 낯선 역사로 인한 난해함을 상쇄할 정도로 내용이 재미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남녀애정담도 자극적 살인사건도 없이 이질적 역사에 기반한 긴 상황 설명과 복잡한 추론, 추론에 따른 사건 풀이가 소설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12) 「「학생계」를 새로히 내힘」, 『학생계』, 1920. 7, 2면.

13) 원작은 1891년 발표된 「다섯개의 오렌지 씨앗」으로 56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 단편 중 다섯 번째 발표된 소설이다. 이 소설은 의뢰인이 사건에 휘말려 살해되고, 홈즈가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극소수의 사건으로서 특징이 자주 거론된다.

14) 1회에는 원작자명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2회에 '코난 도일'이 아니라 '코난 도인'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기가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코난 도일이라는 원작자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학생계』에서는 「K.K.K.」를 번역작으로 선택해서 인명, 지명을 원작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물론 묘사, 추론과정을 축약 없이 원작 내용에 가깝게 번역하고 있다. 물론 조선에 없거나,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단어, 예를 들자면 '오렌지'와 '변호사'가 각각 번역 과정에서 '귤'과 '공증인'으로 바뀌는 것처럼, 몇몇 사소한 부분에서 조선 독자들을 배려한 의역이 일어나지만 의역은 대부분 그 정도에 그치고 있다.

1922년의 조선에서 서구소설, 그것도 난해한 추론, 낯선 서구 지명과 인명으로 이루어진 셜록 홈즈 시리즈의 탐정소설을 원작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대중적 수용을 고려할 때 분명히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명변환은 몰라도 지명까지 조선식으로 바꿀 경우, 근대도시와 근대적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탐정소설 본연의 특질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서 번역자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태서문예신보』의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작 「충복」의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 장두철이 인명은 중국 인명과 조선 인명이 혼합된 국적 불명의 인명으로 바꾸면서도 지명은 서구 지명 그대로 번역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15] 조선인들이 서구역사와 서구 도시 한 가운데 들어서 있는 이 기묘한 풍경의 조합에서 서구탐정소설을 접한 조선사회의 당황스러움 내지 전근대적 조선사회와 근대적 탐정소설 간의 간극이 묻어나온다.

그렇게 본다면 『학생계』에 게재된 「K.K.K.」의 번역 태도는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식 인명과 지명을 원작대로 번역한 것은 물론 묘사와 추론 부분 역시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K.K.K.」의 번역자는 조선 대중과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질성의 충격을 통해 조선 대중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낯설게 하기' 쪽을

15) 조선 최초의 원작 직역이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온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물 「붉은실」 역시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김동성은 원작 직역을 하되, 인명을 조선식으로 바꾸면서 지명은 원작 지명 그대로 두는 것은 물론, 묘사와 추론관련 내용을 번역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제하기까지 했다.

선택한 것이다. '지식의 배움'을 내걸고 창간된『학생계』집필진 면면과 대상 독자층 그리고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할 수가 있다.『학생계』의 편집주간은 동 출판사에서 발행된『서울』,『여자계』,『개척』등에 서구문학 소개 및 서구문예를 번역하여 싣고 있던 젊은 문사 오천석이었으며[16] 경성공업전문학교를 수료한 신태악, 경성의전생 고문룡[17]을 비롯하여 와세다 철학과 출신의 김명식, 게이오대학교 이재과 출신의 변희용 등이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의학도, 공학도가 합류한 덕분일까.『학생계』는 서구문예 번역물이라든가 서구 위인소개와 더불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라든가, 공기 중의 희유원소 관련 내용 등 일반 대중들로서는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근대과학을 소개하는 데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18] 이와 같은 편집구성을 고려할 때『학생계』가 지향하는 독자층이란, 초등교육을 마친 후 중등교과 과정을 학습하고 있는 자, 즉 당시 조선 인구 중 대략 6% 미만의 소수의 엘리트로서 상정될 수 있을 듯하다.[19]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16) 오천석이 스무살의 나이로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한『학생계』의 편집주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창조』동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언급된다. 이상 오천석과 관련한 논의는 오천석의 자서전『외로운 성주』(교육과학사, 2001)와 강명숙의「미국 유학 이전 천원 오천석의 수학과 사회활동-잡지『개척』,『학생계』등의 활동을 중심으로-」(『한국교육사학』제3권 39호, 2017. 9.)를 참조했다.

17) 고문룡은 경성 의전생이면서 조선 에스페란토협회 선전부장을 담당하는 등 김억을 비롯한『학생계』편집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울러 그는『학생계』에 게재된 번역탐정소설「검은 그림자」(1920. 07-08)의 번역자이기도 하다.

18)「아인쓰타인과 상대성이론에 대하야」(『학생계』, 1922. 03.),「공기중의 희유원소발견의 내력」(『학생계』, 1922. 10.)를 비롯하여「자연과학을 배호자」(『학생계』, 1922. 06.)라거나「조선 신세계의 발명가」((『학생계』, 1921. 05)등 과학관련 기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 1920년 기준 보통학교 총 취학률이 5. 7%였다.(이에 관해서는 吉川宣子의「일제시대 초등교육기관의 취학상황」(『교육사학연구』, 1990.2.)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학생계』의 독자는 이 6%의 수치를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학생계』에는 창간호부터 9호까지 〈학교돌이〉라는 코너가 설치되어 이화, 보성, 경신, 숙명, 양정, 배재 등 사립학교를 탐방한 방문기가 실려있는 것으로 바로 이들이 이 잡지가 겨냥한 주된 독자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론과 서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를 일정 부분 익힌 수준의 학생들, 말하자면 기본적 독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중등교육 이상 수준의 학생을 독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만큼 대중적 이해를 고려한 절충안 모색에 굳이 힘을 쏟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다. 원작 내용을 그대로 옮긴 「K.K.K.」의 번역 태도는 이와 같은 『학생계』 편집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에 근거할 때 「K.K.K.」의 번역 게재 역시, 탐정소설의 대중성에 착목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서구 근대적 문화의 학습 및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듯하다.

일단 번역작 선택에서 보자면 「K.K.K.」가 번역된 1921년은 삼일운동의 정신적 축의 하나였던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력이 여전했던 때로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을 학습하고자 하는 열망 역시 고조되어 있었다. 흑백인종차별 등 미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담은 「K.K.K.」는 이에 가장 부합되는 소설이었다. 아울러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서구 탐정소설에는 조선 지식인들이 배우고 알고 싶어 한 근대과학적 지식과 서구 세계의 정치적 상황, 서구적 근대도시구조와 삶, 근대적 사고 등 서구적 근대와 관련한 자료가 들어 있었다. 쉽게 말해서 『학생계』의 편집진에게 있어서 탐정소설은 서구 근대 세계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유효한 한 편의 교과서였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작 훼손 없는 번역, 즉 지명, 인명을 비롯한 원작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옮겨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점에 본다면 일단 신원미상의 「K.K.K.」의 번역자는 참으로 좋은 번역자이다.[20] 그는 가능한 한 원작에 가깝게 번역함으로써 서구 근대적 세

20) 식민지시기 다수 서구소설 번역작이 번역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처럼 『학생계』의 다수 서구소설 번역작 역시 번역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K.K.K.」 번역자로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 일단 『학생계』편집을 담당한 오천석이다. 오천석은 『창조』에 글을 실은 문인이면서 수 편의 번역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K.K.K.」가 번역된 1921년, 오천석은 『학생계』

계의 풍물을 조선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번역가로서의 그의 정확성은 문체의 번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K.K.K.」가 발표된 1922년은 언문일치체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창작소설이나 번역소설에서도 '쓰다'과거형 시제 채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었다. 이런 때에 「K.K.K.」의 번역자는 언문일치체를 정확하게 구현해내고 있었다.[21] 그러나 그는 능숙한 번역, 근대적 문체에 대한 이해 등 번역가로서도, 문학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을 발휘했지만 탐정소설 본원적 특질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듯하다. 「K.K.K.」 번역 과정에서 몇몇 부분에 간단한 감성적인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3인칭 관찰자 시점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인간 내면을 냉정하게 주시해가던 탐정소설로서의 특질에 미세한 균열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1)그것은 결국 무슨 이유로든지 미국에 잇는 것이 매우 염려되는 것 또는 공포되는 것이 잇서서 그리하엿스리라는 것은 이 境遇에는 참말 산 피가 뚝뚝 흐르는 산(生)假定일세. 그러면 이 염려라는 무엇이며 恐怖라는 무엇이냐.[22] (밑줄그은 부분은 번역자 첨가 문장)
>
> 2)박게서는 暴風雨가 아즉까지도 猛烈하게 창문을 부시고 잇섯다. 참말 신비불가해의 사실은 박갓 광경과 한데 엉기어 더욱히 나의 마음을 자극하엿다.[23](밑줄그은 부분은 번역자 첨가 문장)

뚝뚝 흘러내리는 산 피(生血)처럼 감정적인, 달리 표현하자면 문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은 이외에도 몇 군데 발견되면서 탐정소설의 객관

---

편집을 그만두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있었다. 오천석 이외 「K.K.K.」의 번역자로서 추정되는 인물은 김억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짚어볼 계획이다.

21) 『학생계』의 또 다른 두 편의 탐정소설 「검은 그림자」와 「전율탑」 경우 현재와 과거 시제가 혼용되고 있다.

22) 코난 도일, 「K.K.K.」, 『학생계』, 1922. 10, 55면.

23) 코난 도일, 「K.K.K.」, 『학생계』, 1922. 10, 54면.

성을 묘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절절한 감성의 개입은 카메라 렌즈와 같은 시선으로 외부사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탐정소설의 본원적 특질과 명확하게 배치되고 있었다. 특히 예문 2번 항목, 외부의 풍경을 화자의 감정과 연결시킨 묘사가 첨가되면서 관찰자로서만 존재하고 있던 화자의 내면이 어느 틈엔가 독자들에게 전달되면서 독자와 화자 간의 거리도 허물어지게 된다. 번역자는 왜 이와 같은 무의미한 감성적 어휘들을 첨가한 것일까. 문학가로서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것, 그 이외 달리 그의 의중을 설명할 말을 찾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처럼 비록 사소한 감성적 용어 및 문장의 첨가로 인해 탐정소설로서의 특질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1920년대 탐정소설의 번역은 원작의 정확한 전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었다.

## 4. 추론의 약화와 괴기소설의 탄생

1930년대는 탐정소설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탐정소설이 대중적 인기를 끌고 번역도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병석의 김유정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우, 안회남에게 서구 탐정소설 번역거리를 소개해달고 부탁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1930년대 조선대중들이 '추론의 과학'에 기반한 서구탐정소설을 탐정소설 원래의 특질 그대로 즐겼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던 듯하다. 1932년 5월부터 이듬해인 1933년 1월까지 『신동아』에는 '명탐정 쉘록크 홈즈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셜록 홈즈 시리즈가 다섯 편 연달아 번역 게재된다.[24] 번역자는 붉은빛, 물론 필명이다.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이 세상을 떠난 것이 1930년 7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여

24) 『신동아』게재 다섯 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작과 원작 목록을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러 나라들에서 코난 도일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셜록 홈즈 시리즈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동아』에서 다섯 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를 게재하며 셜록 홈즈 특집을 꾸린 것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1930년대 조선에서 셜록 홈즈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다거나 셜록 홈즈라는 가상의 탐정이 널리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신동아』에 다섯 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 한 편인 「쉘록크 홈쓰는 누구인가」 게재에 앞서 번역자가 소개한 다음의 내용은 이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 명탐정 쉘록크 홈쓰 이야기를 두, 세 개 소개했다. 이제 와서 쉘로크 홈쓰라는 이는 果然 어떠한 사람인가를 紹介할 機會에 到達한 줄로 생각한다. 이 소개에 잇서서 「나」라고 하는 이는 곳 왓손 博士이다.[25]

『신동아』 게재 다섯 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 네 편은 '명탐정 쉘록크 홈즈 이야기'라는 부제와 '탐정소설'이라는 장르명 아래 게재되지만, 「쉘록크 홈쓰는 누구인가」 만은 부제 없이, '장편소설'이라는 장르명 아래 게재된다. 번역자 붉은빛은 「쉘록크 홈쓰는 누구인가」 와 나머지 네 편의 탐정소설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는 번역자의 의도일 뿐 「쉘록크 홈쓰는 누구인가」 는 셜록 홈즈 시리즈 첫 장편 「주홍색연구」 앞부분을 발췌한 것으로서 원래부터 탐정소설로서 창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번역자 붉은빛은 셜록 홈즈 시리즈 세 편을 번역 게재한 것에 이어 「주홍색연구」중

| 순번 | 원제 | 번역작 | 번역자 | 게재지 및 출판사 |
|---|---|---|---|---|
| 1 | The Adventure of the Illustrious Client(1924) | 색마와의 격전 | 붉은빛 | 신동아(1932.5-6) |
| 2 | The Three Gables(1926) | 미인의 비밀 | 붉은빛 | 신동아(1932.7-8) |
| 3 | The Adventure of the Sussex Vampire(1924) | 흡혈귀 | 붉은빛 | 신동아(1932.9-10) |
| 4 | A Study in Scarlet (앞부분) | 쉘록크 홈즈는 누구인가 | 붉은빛 | 신동아(1933.1) |
| 5 | The Yellow Face(1893) | 싯누런 얼굴 | 붉은빛 | 신동아(1933.2) |

25) 붉은빛, 「쉘록크 홈쓰는 누구인가」 , 『신동아』, 1933. 1. 76면.

앞 부분을 발췌한 후 거기에 '장편소설'이라는 장르명을 붙여 게재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 독자들에게 '셜록 홈즈'는 누구인지, 셜록 홈즈를 알리고,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1930년대 조선 대중에게 '셜록 홈즈'는 생소한 존재였던 것으로 이는 탐정소설 자체에 대한 당시 조선사회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이 점에서 '붉은빛'의 첨언의 또 다른 부분, "이 소개에 있어 나라고 하는 이는 곧 왓슨 박사이다."라는 문장 역시 주목할만하다. 1인칭 화자 '나'(왓슨)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에서 이미 내용 전개에 '왓슨'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독자라면 화자 '나'가 왓슨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번역자는 굳이 이 부분을 밝히고 있다. 3인칭 시점의 이광수 「무정」이 발표된 것이 1917년, 1인칭 시점의 김동인 「마음이 옅은 자여」가 발표된 것이 1919년. 『신동아』에 다섯 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가 연재된 1933년은 소설에 근대적 시점이 도입된 지 십 년도 훨씬 지난 때였지만 대중은 여전히 소설 속 '시점' 개념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을 제대로 수용하기 힘들었던 대중, 과연 이 대중들이 탐정소설의 치밀한 묘사와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

1939년 『조광』에 게재된 「심야의 공포」는 이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심야의 공포」는 셜록 홈즈 시리즈 「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and」(1892)를 번역한 것으로 번역자는 김내성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 김내성은 식민지 시기 조선의 유일한 탐정소설작가였다. 그는 식민지 시기 동안 다수의 창작 탐정소설을 발표하면서 서구탐정소설 번역에 단 한 차례 손을 대었는데 「심야의 공포」가 바로 그것이다. 「심야의 공포」 원작인 「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and」, 일명 「얼룩띠」는 작가 코난 도일이 자신의 셜록 홈즈 단편 중에서 첫 번째 위치에 둔 작품임과 동시에 평단과 대중 모두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26] 그러나 1918년 「충복」

26) 코난 도일은 『Strand Magazine』 1927년 3월호에서 「The Adventure of the Speckled Band」, 일명 「얼룩띠」를 자신의 셜록 홈즈 시리즈 단편 중에서 1위로 위치시키고 있다.

이라는 제명으로 셜록 홈즈 시리즈가 조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김내성의 「심야의 공포」번역 전까지 열 편이 넘는 셜록 홈즈 시리즈가 조선어로 번역되지만 「얼룩띠」에 주목한 번역자는 김내성 이외에는 없었다.[27] 그런 점에서 김내성이 60편이 넘는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얼룩띠」를 번역작으로 선택한 것에는 탐정소설 작가로서의 전문적 감각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김내성이 셜록 홈즈 시리즈 중 「얼룩띠」를 주목한 것은 탐정소설로서의 완성도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작 「얼룩띠」는 탐정소설이되, 괴기적인 요소가 강화된 탐정소설이다. 운명 동일체의 여자 쌍둥이, 밀실 살인사건, 밤이면 들리는 기묘한 피리소리, 불길한 느낌의 집시 무리(Band), 음침한 저택, 식민지에서 돌아온 음산한 기운의 의붓아버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 끈(Band) 등 음울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가 소설 전반에 흐르고 있다. 일단 김내성은 조선어 번역 과정에서 원제 「얼룩띠」를 「심야의 공포」라는 제목으로 바꾸면서 원작의 괴기소설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소설에서 '띠(Band)'라는 단어가 범인을 암시하는 복선이면서 작가가 장치한 핵심적 '트릭'이었던 만큼 제목의 변환이 탐정 소설적 특질의 약화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유학시절 일본의 탐정소설전문잡지 『프로필』현상모집에 당선된 것은 물론 일본 탐정소설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던 탐정소설 전문작가 김내성이 이와 같은 '트릭'을 감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 그런 점에서 제목 변환에 따른 탐정 소설적 특질의 약화는 김내성의 선택이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적 트릭인 '띠'와 관련한 다음의 추론 부분의 변화는 주목할만하다.

27) 「The Boscombe Valley Mystery보스콤 계곡」에 한해서 1921년 김동성 번역으로 『동아일보』에 「보손촌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후 1935년 11월부터 12월 2회에 걸쳐 『사해공론』에 「보스콤곡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번역된다. 1935년이면 이미 60편의 셜록 홈즈 시리즈가 모두 발표된 때인데 왜 조선어 번역과정에서 이 소설은 두 번 번역되었는지 그 이유가 흥미롭다.

1) 왓슨. 사실 나는 완전히 틀린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네.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추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지. 집시들의 존재 그리고 스토너 양의 가엾은 여동생이 성냥불을 켜서 언뜻 본 것을 〈띠〉라고 했다는 얘길 듣고 나는 완전히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 내가 한 가지 잘한 것은 외부에서 그 어떤 것도 창이나 방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곧장 판단을 수정한 것이지.[28]

2)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초인종 끈나불과 구멍을 보았을 때 벌서 나는 그 구멍으로 드나들 수 있는 가는 뱀을 연상하였네.[29]

김내성은 원작의 핵심인 '띠'라는 단어 관련 트릭을 번역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가 죽어가면서 남긴 범죄사건의 유일한 실마리인 'Band'라는 영어단어의 이중적 의미, 예를 들자면 집시 무리의 무리(Band)와 얼룩띠의 띠(Band)라는 이중적 의미를 조선 독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김내성으로서는 상당히 지난한 일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번역 과정에서 제목이 '얼룩띠'에서 '심야의 공포'로 바뀌고, 범죄사건의 핵심적 트릭과 관련한 내용이 삭제되는 등,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가 반드시 영어의 이중의미 전달의 곤란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울 듯하다. 탐정소설의 기본이 되는 추론과 치밀한 묘사 역시 번역 과정에서 대거 삭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인명과 지명도 모두 조선식으로 변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김내성의 번역은 번역의 정확성에서 보자면 초기 셜록 홈즈 번역, 예를 들자면 셜록 홈즈 시리즈 최초의 조선어 번역 「충복」(1918)과

28) 아서 코난 도일, 백영미 옮김, 「얼룩띠의 비밀」, 『셜록 홈즈 전집』5, 황금가지, 2002, 300면. (본 연구에서 인용한 원작번역은 2002년 황금가지에서 나온 셜록 홈즈 시리즈이다. 원작의 원문과 비교했을 때, 내용의 누락 내지는 왜곡 없이 번역하였다.)

29) 김내성 번역, 「심야의 공포」, 『조광』, 1939. 3, 347면.

셜록 홈즈 시리즈 최초의 조선어 직역을 내걸고 등장한 「붉은실」(1921)의 번역 태도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0] 아울러 인명과 지명은 물론 묘사와 추론 과정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함으로써 탐정소설의 특질을 제대로 구현해내었던 「K.K.K.」(1922)의 번역적 성과로부터 후퇴한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번역자 김내성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그는 셜록 홈즈 시리즈 「얼룩띠」를 「심야의 공포」라는 제목의 조선어로 번역하면서 "논리적 근거를 바탕에 깔고 있는 신속한 추리"[31]라든가, 현미경을 들이대는 듯한 치밀한 묘사를 포기하는 대신 근거를 알 수 없는 '공포'를 남겨두고 있다. 다음은 「심야의 공포」의 시작부분, 의뢰인 혜숙과 홈즈의 만남을 담은 부분이다.

> 「…(생략)…자아, 이 난로 옆으로 다가앉으십시오. 떠시는 것을 보니 대단히 치우신 모양인데-」
>
> 「아녜요. 치워서 떠는 것이 아녜요!」
>
> 「그러면 어디 몸이 편치않으셔서……?」
>
> 「아녜요. 무서워서, 무서워서요.」
>
> 여자의 얼굴은 그 어떤 두려움으로 말미아마 새파라케 변하였다.[32]

대화의 핵심 내용은 '공포'이다. 김내성은 번역 과정에서 제목을 '심야의 공포'로 바꾸는 것은 한편 서두부 내용을 상당 부분 생략, 각색하면서도 위의 대화는 그대로 번역하고 있었다. 물론 자극적 제목으로의 변환이 김내성 번역에 한정된 특징은 아니었다. 1933년 『신동아』 게재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물 역시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동아』 번역물 경우 「색마와의 격전」, 「미인의 비밀」, 「흡혈귀」처럼 제목만 자극적으로

30) 「충복」과 「붉은실」 경우 인명은 조선식으로 바뀌되, 지명은 원작의 지명 그대로 유지된 반면 「심야의 공포」에서 김내성은 인명에 이어 지명까지도 모두 조선식으로 바꾸고 있다.

31) 아서 코난 도일, 백영미 옮김, 「얼룩띠의 비밀」, 『셜록 홈즈 전집』5, 황금가지, 2002, 264면.

32) 김내성 번역, 「심야의 공포」, 『조광』, 1939. 3, 337면.

변환될 뿐 인명과 지명 그리고 추론 부분은 가능한 한 원작을 따르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김내성 번역은 인명, 지명 모두 조선식으로 바꾼 후 삭제, 축약 등 대대적 수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미 일본어로 발표된 자신의 탐정소설 두 편을 조선어로 번역하면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수정을 가한 적이 있는 김내성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일본어 소설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정 방법 및 정도 역시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수정 방법 및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정의 핵심은 추론과 묘사를 가능한 줄이고 그 자리를 설명, 신파적 서술로 대체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탐정소설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탐정소설 번역 과정에서 발견되는 김내성의 선택과 결정, 다시 말해서 탐정소설적 정체성을 포기한 선택과 결정은 조선 대중, 더 넓게는 1930년대 조선 사회와 탐정소설 간의 접점을 모색한 결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모색은 일본과 조선 양측에서 일본과 조선 대중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조선어로 탐정소설을 창작해본 김내성의 경험과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자신의 일본어 창작 탐정소설을 조선어로 번역하면서 역사성과 사회성이 소멸된 그로테스크한 한 편 연애담으로 바꿔버릴 정도, 김내성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탐정소설의 존립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추론과정이 삭제되고 공포가 강조된 괴기소설 「심야의 공포」는 김내성이 당시 조선 대중의 취향에 정확하게 맞춘, 일종의 맞춤형 탐정소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번역이야말로 '야담'이라든가 '괴기소설'에 여전히 몰입해있던 1930년대 조선 대중의 취향과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한 번역이기도 했다.

## 5. 결론

번역 탐정소설이 성행한 1930년대. 이 시기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근대조선 성립을 향한 조선사회의 열정적 의지가 상당 부분 사라진 때였다. 서구 근대 수용에 팔을 걷고 나섰던 1920년대 『학생계』잡지의 젊은 엘리트 편집진들 대다수가 독립에의 꿈을 접거나, 친일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는 번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생계』 게재 서구탐정번역소설 「K.K.K.」의 번역과정에서 발견되었던 도전적 투지, 예를 들자면 서구 근대를 배우기 위해 원작의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조선어로 옮기던 그 투지가 더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낯설고 어려워서 대중에게 먹혀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낯설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근대적 세계로 대중을 이끌어가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견지하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암울했던 것이다.

인명과 지명은 물론 세부 묘사, 어려운 추론 과정까지 원작에 가능한 한 가깝게 번역한 「K.K.K.」의 번역과 달리 개작에 가까울 정도의 수정을 가한 김내성 번역은 이와 같은 시대 상황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후죽순처럼 탐정소설 번역에 달려들었던 대다수 번역자들과 달리 김내성은 조선 유일의 탐정소설작가로서 탐정소설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셜록 홈즈 시리즈 「얼룩띠」를 「심야의 공포」로 번역하면서 다양한 변환을 일으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내성은 식민지 조선 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고려할 때, '추론의 과학'에 기반한 정통 탐정소설은 수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1930년대 중반의 조선 대중들에게는 서구문학을 통해 새로운 근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남아있지를 않았다. '독자' 즉, 대중의 취향에 중점을 두는 번역을 선택한 김내성의 결단은 이와 같은 1930년대 중반 조선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사해공론』, 『신동아』, 『조광』, 『태서문예신보』, 『학생계』

## 2. 논문

강명숙, 「미국 유학 이전 천원 오천석의 수학과 사회활동-잡지 『개척』, 『학생계』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권 39호, 2017.

박진영, 「천리구 김동성과 셜록 홈스 번역의 역사 - 『동아일보』 연재소설 『붉은 실』」, 『상허학보』, 2009.

정혜영, 「『태서문예신보』의 이상과 셜록 홈즈 시리즈 번역 - 「충복」을 중심으로 -」, 『동서인문학』, 2021.

정혜영, 「식민지 조선과 셜록 홈즈: 『바스커빌 가의 개 The Hound of the Baskervilles 」의 조선어 번역과정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019.

조경덕, 「『태서문예신보』 소재 소설 「충복」 연구 -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2017.

吉川宣子, 「일제시대 초등교육기관의 취학상황」, 『교육사학연구』, 1990.

## 3. 단행본

박진영, 『탐정의 탄생-한국추리소설의 기원과 역사』, 소명출판, 2018.

정혜영, 『탐정문학의 영역』, 역락, 2011.

정혜영, 『대중문학의 탄생』, 아모르문디, 2016.

오천석, 『외로운 성주』, 교육과학사, 2001.

아서 코난 도일, 백영미 옮김, 『셜록 홈즈 전집』 1-10, 황금가지, 2002.

**<Abstract>**

# The Age of Colony and A translation of detective novel
## −Sherlock Holmes series based translation novel, “K.K.K.” and “The Horror of the Night”

Jung, Hye-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between translation and society through two Sherlock Holmes series translation novels, “K.K.K.” and “The Horror of the Night.” Among the two, “K.K.K.” was translated into “Student World,” a magazine published in 1922 with the aim of constructing modern Chosun, and “The Horror of the Night” was published in 1939 in the magazine “Jogwang”. In the case of “K.K.K.,” though some emotional terms and sentences were add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causing small cracks in the characteristics of detective novels, it basically focused on the accurate delivery of the original work. On the other hand, “The Horror of the Night”, translated by Kim Na-seong -the only detective novel writer in Chosun- had various transformation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translation based on these transformations in the translation process of two novels of Sherlock Holmes series.

Key words: Sherlock Holmes series, K.K.K., The Horror of the Night, Modern Chosun, Student World, Jo Kwang, Detective Novels, Translation

투 고 일 : 2021년 2월 15일　　심 사 일 : 2021년 2월 19일–3월 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1년 3월 22일